

교육학석사학위청구논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교육제도의 비교분석

With our country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country education system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생물교육전공

이 민 정

교육학석사학위청구논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교육제도의 비교분석

With our country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country education system



지도교수 배 성 호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본 논문을 이민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08년 월 일



부심

부심

## 논문개요

학부모들의 지식수준은 높아지고 자식의 수는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교육에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재능을 찾아내어 키워주려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원이나 과외를 당연한 듯 보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피아노나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음악적 감성도 키우고 건강도 챙기고 있긴 하지만 공부하는 시기인 초중고시기에 이르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음식의 서구화로 인해 더욱 건강이 악화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학교 수업이나 학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기유학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기러기 아빠도 늘어나고 있다. 초중고 방학 기간에는 필리핀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나가 배워오기도 하며 이민을 가는 가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보내고 있는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 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일이 생겨 불이익을 본다면 그 또한 어떨겠는가. 수능을 봤다고 해도 자신의 점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재수하는 학생들도 많이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실정을 알아보고 다른 나라 교육제도의 실정도 알아보고 장점은 무엇인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졌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나아진다면 유학이나 이민을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나아가서 다른 나라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올지도 모를 일 아니겠는가?

이제 영국, 미국, 독일, 필리핀, 핀란드의 취학 전 교육과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 대학 교육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각 나라들에게서 본받을 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 목차

I. 서론.....	1
II. 본론.....	1
1.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1
가. 취학 전 교육.....	1
나. 초등 교육.....	1
다. 중고등 교육.....	2
라. 대학 교육.....	2
2. 영국의 교육제도.....	5
가. 취학 전 교육.....	5
나. 초등 교육.....	5
다. 중등 교육.....	6
라. 고등 교육.....	7
마. 대학 교육.....	7
3. 미국의 교육제도.....	10
가. 취학 전 교육.....	10
나. 초등 교육.....	10
다. 중고등 교육.....	10
라. 대학 교육.....	11
4. 독일의 교육제도.....	14
가. 취학 전 교육.....	14
나. 초등 교육.....	14

다. 중고등 교육.....	15
라. 대학 교육.....	16
5. 필리핀의 교육제도.....	19
가. 취학 전 교육.....	19
나. 초등 교육.....	19
다. 중고등 교육.....	19
라. 대학 교육.....	20
6. 핀란드의 교육제도.....	22
가. 취학 전 교육.....	22
나. 초중등 교육.....	22
다. 고등 교육.....	23
라. 대학 교육.....	23
III. 결론.....	26
IV. 참고문헌.....	32
V. 국문요약.....	33
VI. 영문요약.....	34

# 표목차

표1.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4
표2. 영국의 교육제도.....	9
표3. 미국의 교육제도.....	13
표4. 독일의 교육제도.....	18
표5. 필리핀의 교육제도.....	21
표6. 핀란드의 교육제도.....	25





# I. 서론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영국, 미국, 독일, 필리핀, 핀란드의 취학 전 교육과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 대학 교육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다른 나라 교육제도의 장점과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단점들을 살펴보고, 배워야 할 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 가. 취학 전 교육

우리나라는 취학 전에 유치원을 다닌다.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아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을 도와주는 교육기관이다. 건강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표현생활영역, 언어생활영역, 탐구생활영역의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배운다.

#### 나. 초등 교육

초등 교육은 교육제도의 체계상에서 볼 때 가장 먼저 받는 교육으

로 6세나 7세부터 6년 동안 학습한다. 나는 초등 교육 이전에 받는 교육을 취학 전 교육이라 하여 유치원과 초등교육을 나눴지만, 제도에 따라서 초등 교육을 예비기초교육과 기초 교육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여기서 예비기초교육은 보육학교나 유치원 교육을 말하고, 기초 교육은 초등 교육이라 말한다.

#### **다. 중고등 교육**

중고등 교육은 제 2단계 교육이라고 하기도 한다. 12세나 13세부터 18세나 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초등 교육과 대학 교육의 중간단계를 이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민학교, 특수학교, 산업체 부설 중, 특별 학교,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방통고, 산업체 부설 고, 고등기술학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라. 대학 교육**

초등 교육과 중고등 교육에 이어지는 교육이며, 가장 높은 단계이다. 학교 교육의 최종단계로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과 대학원교육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네스코에선 대학 교육의 공통된 성격을 중고등 교육을 수료하고 수능이나 다른 선발시험에 통과한 18세 이상의 남자, 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등에서 행하는 교육, 학문연구와의 밀접한 관련 아래 전문적 직업교육,

기술교육, 예술교육, 교원양성 등을 행하는 교육, 수료자에게 특정한 학위 또는 졸업증서를 주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하는 점 등이라 얘기하고 있다.





## 2. 영국의 교육제도

### 가. 취학 전 교육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같은 단계의 교육 부분으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 시 학교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보내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점은 오전반과 오후반, 종일반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어서 학부모가 편한 시간에 보낼 수 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으며, 읽고 쓰고 말하기, 듣기, 미술, 음악, 스포츠 등을 가르치고 생활의 기본을 익히게 한다.

### 나. 초등 교육

7세부터 11세까지 5년에서 7년 동안의 교육을 말한다. 의무 교육은 5세부터 시작이 되며, 학생 수는 100에서 300명 정도로 한 교사가 15명에서 22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친다. 1학기가 9월에 시작해서 12월경에 끝나며 2학기는 1월에 시작해서 3월에 끝난다. 3학기는 4월에 시작해서 7월 초순에 끝난다. 그리고 학기 중에 7일에서 10일 정도의 방학이 있는 게 특징이다.

사립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 16명의 정원으로 수업을 한다. 우리나라가 4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부러운 점이 아닐 수가 없다. 오전에는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없는 수학, 영어, 역사, 지리, 과

학, 라틴어, 프랑스어, 컴퓨터 등의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재능을 높이기 위해 예체능 수업을 하는데 미술 과목엔 그리기, 칠하기, 만들기 등의 수업을 하며, 체육 과목엔 체조, 수영, 말 타기 등의 수업을 하며, 음악 과목엔 첼로, 하프, 피아노 등의 악기 하나를 선택하여 수업을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식사를 모두 제공하며 수업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한 후, 영어 보충 수업을 하거나 시청각 수업, 일기나 편지 쓰기 등의 활동을 한다. 주말에는 운동시합이나 소풍 등의 시간을 보낸다.

#### 다. 중등 교육

11세부터 16세까지 5년 동안의 교육을 말한다. 사립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9에서 11과목 정도를 수업 받는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수학, 영어, 과학, 정보, 기술, 역사, 지리, 외국어, 음악, 미술, 영화, 컴퓨터, 디자인, 종교, 드라마, 미디어, 사회학 등을 배운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면 끝난다. 개별 활동시간에는 스케이트, 호신술, 승마, 발레, 펜싱 등을 한 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저녁을 먹는다. 저녁을 먹고 나서 2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자습 시간이 있어 자습을 하고 자유 시간을 갖은 후, 취침을 한다. 주말에는 서클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조정 경기, 골프, 밴드, 오케스트라, 산책 등이 있다. 수업 일정에 따라서 전시회나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을 다녀오고 단체 여행을 하여 다른 지역의 역사나 문화 등을 체험하기도 한다.

## 라. 고등 교육

16세부터 18세까지 2년 동안의 교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와 비슷한데 중등 교육 과목 중 3과목에서 4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하게 된다. 이는 대학 수업 방식과 같으며 과목별로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나 방식, 학습 상황, 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하나하나 체크하며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간표는 중등 교육과 동일하며 주말에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지원한 대학에 견학을 가거나 예체능 쪽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전시회나 미술관, 음악회 등에 참석해 교육을 보충하기도 한다.

## 마. 대학 교육

18세 이상의 학생들이 받는 교육을 말한다. 여러 고등 교육 기관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총 학생 수가 만 명 미만이다. 학생 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경우는 여러 단과 대학으로 나뉘어져 있어 교수가 12명 정도의 학생들과 수업을 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은 대학이 평준화 되어 있어 어느 교육 기관에서 학위 수여를 했든 똑같이 인정을 받는다.

대학 교육은 학부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학부 과정은 주로 3년제이며 스코틀랜드는 4년제이다. 석사 과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과정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12개월 동안 수업을 듣고 나서 논문을 작성하는 수업석사과정이고, 또 다른 한 과

정은 2년 동안 수업은 하지 않고 연구만을 하는 연구 석사과정의 있다. 박사 과정은 3년제이며, 전공이 무엇인지, 연구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때는 학비를 내지 않고 실험실 사용료나 다른 이용료만을 내고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다. 수업은 따로 없고 지도 교수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연구 진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되고 있는지 등의 지도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학년 (기간)	과정		나이	비고
박사 (3년)	박사과정 22		22	
석사 (1년)	대학원		21	
3학년	학사 (3년)	GNVQ5/NVQ5	20	
2학년		HND (2년) HNC	19	
1학년		(1년)		
13학년 (upper six)	GCE A-level (대학입학준비 시험과정)	Advanced GNVQ	18	대학예비 과정
12학년 (lower six)	(AS level)		17	
11학년 (Form V)	GCSE 과정 (중등학교 졸업시험 과정)		16	의무교육 기간 (11년)
10학년 (Form IV)			15	
9학년 (Form III)			14	
8학년 (Form II)	중등교육 (Secondary School)		13	
7학년 (Form I)			12	
6학년	Common Entrance Exam		11	
5학년	초등교육		10	
4학년	(Preparatory School)		9	
3학년			8	
2학년			7	
1학년			6	
			5	

표2. 영국의 교육제도

### 3. 미국의 교육제도

#### 가. 취학 전 교육

2년에서 3년 동안의 유치원 교육을 말한다. 5세 미만이나 6세 미만 등의 유아 교육 기관이 있으며 거의 70%이상이 유치원 교육을 받는다. 교회나 각 사립학교 운영 학교, 비영리단체, 정부운영 학교 등의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어 선택하여 맘에 드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

#### 나. 초등 교육

미국은 각 주에 따라 독자적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어 각 주에 따라 교육제도가 다르다. 의무교육 기간이 6년에서 12년이고 6년제 초등학교가 있다. 거주 지역의 공립 초등학교는 한 교사가 25명 정도의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데 거의 전 과목을 지도한다.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능 과목이나 컴퓨터 등의 기능과목은 다른 교사가 하는 학교도 있으며 4학년 정도 됐을 땐 읽고 계산하는 과목은 교사가 분리 되어 있는 학교도 있다.

#### 다. 중고등 교육

13세부터 15세의 학생들이 받는 교육으로 두 가지 과정이 있다. 한 과정은 7학년부터 9학년 혹은 7학년부터 8학년까지로 나뉘는 주니

어 하이스쿨이고, 다른 과정은 16세부터 18세 동안 다니고 10학년부터 12학년 혹은 9학년에서 12학년으로 나뉘는 하이스쿨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1학년이 미국의 7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12학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공립학교에선 수학, 영어, 과학, 역사 과목을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한명의 교사가 20명에서 24명의 학생들을 지도하여 개별적인 지도가 쉽다. 우리나라보다 체육이나 예능 활동 등의 과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대학 진학에도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졸업 규정이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이뤄지는 학점제를 사용하여 일정한 수의 학점을 채우고 졸업시험을 봐서 합격 시 졸업장을 수여한다.

## 라. 대학 교육

미국엔 약 3000여 개의 대학이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저렴한 학비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거의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미국 대학은 단과대학, 종합대학, 기술대학, 초급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단과대학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으며 4년의 학부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받는다.

종합대학은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부과정은 4년제로 수업 이수 시 학사학위를 받는다. 대학원에선 학위논문이 통과되면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는다. 전문대학원도 있는데 의학, 치의학, 약학, 법학, 경영학 등의 전문적인 과목을 가르치며 기간은 전공마다 다양하다.

기술 대학은 종합대학과 유사하지만 과학 기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는게 조금 다르다.

초급대학은 2년제로 공립이 많으며 전문 기술과 기초 학문을 교육한다. 기숙사도 없고 야간에 수업이 많이 개설되어 있어 성인들이 많이 듣는다. 학생들은 초급 대학을 나온 후에 다시 4년제 대학을 가기도 한다.



학년 나이

의 무 교 육	19	25	대학	주니어칼리지	고등교육
	18	24			
	17	23			
	16	22			
	15	21			
	14	20			
	13	19			
	12	18	4년제 하이스쿨	하이스쿨 상급하이스쿨 6년제 하이스쿨	중등교육
	11	17			
	10	16			
	9	15	초등교육		
	8	14		하급하이스쿨	
	7	13			
	6	12			
	5	11			
	4	10			
	3	9	초등학교		
	2	8			
	1	7			
	6	유치원			
	5				
	4				
	3		보육학교		
	2				
				취학전 교육	

표3. 미국의 교육제도

## 4. 독일의 교육제도

### 가. 취학 전 교육

3세부터 취학 전 교육이 가능하며 80%정도가 유치원에 다닌다. 유치원은 독일이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로 궁핍한 어린이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했다. 문자나 수를 가르치지 않고 언어능력촉진, 인성신장, 사회성교육, 놀이 활동을 가르친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유치원 다니는 것은 부모의 의사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유치원은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집에 보내는데 일부 종일제 유치원은 탁아소를 운영하기도 한다.

### 나. 초등 교육

6세부터 18세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받고 교과서와 부교재가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엔 재정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6세에서 10세의 어린이가 받는 교육으로 능력에 따라서는 5세에서 7세부터도 가능하다. 입학기가 9월1일이 시작되며 기본적으로 4년 동안 교육을 받지만 브레멘, 베를린, 함부르크에서는 6년간 교육을 받는다. 교과과정이나 필수 과목, 학습 수준 등을 통일하기 위해 16개 주가 참여하는 상설 공동협의기구를 두고 있지만,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각 주마다 다르다. 어떤 주는 5학년에서 6학년 동안에 어떤 학교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바꿀 수도 있게 하는 상황 파악 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 다. 중고등 교육

중고등 교육은 주요학교와 실업학교, 김나지움, 종합학교로 나눌 수 있다. 주요학교는 5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5년제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는 30%정도로 오늘날에는 인기가 계속 떨어져 폐쇄의 위기에 있다. 주요학교는 학업수준이 낮으며 보통 교육을 실시한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아 졸업 후엔 직업생활에 기초가 되는 내용을 배운다. 직업 교육을 받을 때 도움이 되게 하기위해 한 가지의 외국어를 가르친다.

실업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생 중 20%정도가 진학하며 고등 교육기관으로 연결되는 경로로 우리나라의 중학교 기관이라 생각하면 된다. 주요학교와 김나지움 사이에 있는 중간 수준이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아 1/3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또한, 적어도 한 개의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게 하고 제2외국어도 가르친다. 상업, 상무 교육을 받아 중급 수준의 기업, 행정, 사무 능력을 쌓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전문 직업학교에 입학하는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다.

김나지움은 5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9년 과정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이며 고전어, 수학, 과학의 3가지 김나지움으로 나누어진다. 학교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목적으로 다니며 김나지움을 이수한 학생은 모든 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을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5학년에서 10학년을 중등 1단계, 11학년에서 13학년을 중등 2

단계로 구분한다.

종합학교는 주요학교와 실업학교, 김나지움의 3학교 형태를 혼합한 형태이다. 이 세 학교는 학생들의 진로를 너무 일찍 선택하게 하여 도중에 바꾸지도 못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여 1970년대 초에 종합학교가 생겼다.

## 라. 대학 교육

독일의 대학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다. 요즘은 학생 수가 많아져 대학에서 원하는 기간 동안 학업을 계속 하거나 편입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 그래서 많은 대학을 설립하고 있으며 그 중 전통적인 대학과 동등한 수준이지만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인문대학도 세우고 있다. 또한, 교육이나 예술, 공학 분야의 단과대학과 학교들을 종합대학 수준으로 올리고 건축, 디자인, 예술, 농학, 기계공학, 경영학 등의 어느 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고등기술학교인 새로운 전문학교도 만들었다.

전문대학에서는 기술, 상업, 사회사업, 농업, 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실기 교육을 실시한다. 기간은 종합대학 과정보다 짧으며 대학지원자의 1/3이 전문대학을 택한다.

종합대학은 독일에 97개가 넘게 있으며 교육과 연구를 통합하여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전공이 아니고선 필수과목이 없다. 졸업은 4년에서 6년 정도 걸리나 중도 탈락하는 학생이 많아 평균 7년이 넘는다. 졸업 후에는 박사학위과정을 계속해서 이수할 수 있다. 17세기에 폐지된 문학 석사 학위가 부분적으로



로 부활되기는 했지만 석사 학위는 거의 없고 박사 학위만 수여된다. 종합 단과 대학도 있는데 다양한 단과대학의 형태를 모은 연합과정들을 제공한다. 이 대학은 학문성과 직업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전문적 직업교육의 편중을 시정하고 학문과 교양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새로 도입했다. 그러나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학년 나이

의무교육	18	23									고등교육												
	17	22	중학대학 단과대학				공업 전문 학교		고등 전문 학교														
		21																					
	16	19	여 자 고 등 학 교	고 전 어 김 나 지 음	근 대 어 김 나 지 음	수 학, 자 연 과 학 김 나 지 음	사 회 과 학 김 나 지 음	6 년 제 실 과 학 교	3 년 제 실 과 학 교	6 년 제 김 나 지 음	실 업 학 교	직 업 학 교	상 급 직 업 학 교	전 문 학 교	중 등 교 육								
		18																					
		17																					
		16																					
		15																					
		14																					
		13																					
		12																					
		11																					
		10																					
	의무교육	9	14									초 등 교 육											
		8	13																				
		7	12																				
		6	11																				
		5	10																				
4		9																					
3		8																					
의무교육	2	7									취 학 전 교 육												
	1	6																					
		5																					
		4																					
		3																					

표4. 독일의 교육제도

## 5. 필리핀의 교육제도

### 가. 취학 전 교육

필리핀의 유치원교육은 공립보다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된다. 만 2세부터 다닐 수 있으며 보통 2세에서 4.5세까지는 하루에 두 시간 정도의 수업을 한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보육원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4.5세부터 6.5세의 유아들이 우리나라의 유치원에 해당되며 하루에 4시간정도 공부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식과 스쿨버스 운영은 유치원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자체에서 급식을 하지 않아 집에서 도시락이나 간식을 싸서 보내야하고 스쿨버스 운영 요금은 따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 나. 초등 교육

초등학교는 만 6세부터 입학이 가능하며 6년 동안 다닌다. 수업은 거의 영어와 필리핀어로 진행이 된다. 교육과목은 수학, 영어, 국어, 과학, 컴퓨터, 종합과목 등을 배우며 일부 카톨릭 학교의 경우 성경을 배우기도 한다. 학과 과정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 학비는 거의 무료이고 사립초등학교의 경우도 현지인들에게 수업료를 적게 받는다.

### 다. 중고등 교육

필리핀은 우리나라처럼 중학교가 없고 고등학교를 4년 동안 다닌 후 대학에 진학한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도 21살이 넘지 않는다. 국민의 68%정도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교육과목으로는 수학, 영어, 국어, 과학, 가사, 기술, 체육, 음악, 종합과목, 컴퓨터 등이 있고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카톨릭 학교의 경우 성경을 배우기도 한다.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고사와 각 대학의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35%정도가 대학에 진학한다.

#### 라. 대학 교육

대학은 2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정규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전공에 따라 각각 2년제, 4년제, 6년제, 8년제의 대학과정이 있어 5년에서 10년까지 공부하는 과정도 있다. 보통 2년제는 교양과목에 해당하고 치과와 엔지니어링은 6년제에 해당한다. 법학의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에 입학할 수 있어 8년제이며, 의과외의 경우 인턴이 추가되면 1년을 더 다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여름 방학동안 수업을 하는 여름 학기처럼 필리핀도 여름 학기가 있어 이수를 하게 되면 졸업을 앞당길 수도 있다. 진학을 하기 위한 학점이 부족할 경우엔 보충을 하기 위해 여름 학기를 다니기도 한다. 1학기는 6월에서 10월이며 2학기는 11월에서 3월로 두 학기가 있고 계절 학기는 필리핀에서 가장 더운 여름인 4월에서 5월까지이며, 크리스마스에는 2주간의 방학이 있다.

학기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4년	국제학교의 경우, 학교에 따라 10~12학년까지 있다.
교과과정	일반적인과목 (국어,수학,물리,생물,미술, 음악 등...)	학교에 따라 특수 과목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 종류	-공립학교 -사립학교 -국제학교	외국인의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국제학교(70%)및 사립학교(30%)로 진학.
	공립학교	사립학교
	국제학교	
	-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 -수업이 주로 “ 필리핀어”로 진행. -외국인 거의 없음.	-주로 “영어80%+ 필리핀어20%로 수업진행 -인간 학비가 저렴 -“필리핀어”수업 이 있음 -한국 학생 비율이 30%정도 -간단한 시험을 통과 후,입학 -대표적인학교: 산어거스틴, OB몬테소리 등.
		-영어만으로 수업진행 -연간학비가 500만원이상. -한국학생비율이 20~40% -영국식,미국식학교 가 있음 -학교 자체 시험을 통과후 입학 -대표적인학교: 브렌트, 에스테반 등.

표5. 필리핀의 교육제도

## 6. 핀란드의 교육제도

### 가. 취학 전 교육

핀란드는 평등한 교육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어 교육정책 방향도 동등한 기회 제공에 맞추고 있다. 그래서 유치원과 같은 유아교육기관은 6세 유아들에게 취학 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탁아시설이나 부모에게 맡겨지며 대부분의 6세 아동들은 탁아시설 또는 종합학교 부설 취학 전 과정에도 등록하고 있다.

### 나. 초중등 교육

핀란드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통합되어 있어 7세부터 16세까지의 학생들이 10학년과정을 이수한다. 1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며 10학년의 경우 선택할 수 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저학년 과정이라 하는데 담임교사가 전 과목을 가르친다.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고학년 과정으로 과목별로 교사가 있어 따로 가르친다. 취학 전 교육과 마찬가지로 수업료, 교과서, 급식 등 모든 것이 무료이며, 학교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핀란드는 외국어과목의 비중이 높아 3학년 때부터 공용어인 스웨덴어, 영어, 독일어 등의 외국어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배우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외국어가 추가 교육되고 있다.

## 다. 고등 교육

고등 교육은 3년제의 일반 고등학교와 2년에서 3년제의 직업학교 두 가지 형태가 있다.

3년제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대학진학 자격시험을 거쳐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학교에 진학, 취업을 한다. 수준별 학습을 하여 학년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영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심화 영어를, 수학에 적성이 맞는 학생은 수학 심화 과정을 듣는다. 또한 취약한 과목은 보강을 할 수도 있다. 우수한 학생은 집에서 선생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공부를 할 수도 있다. 교사들의 수준도 높아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가 반드시 있어야하며 방학 동안엔 교원연수나 재교육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1/3은 중앙정부, 나머지는 민간이 운영하고 운영비는 중앙정부가 거의 부담한다. 교과과정은 2년에서 3년 동안 이수해야하며 실기와 연계된 수업을 한다. 직업학교를 이수하고 취업을 하거나 직업전문대학, 일반대학교에 진학하여 대학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 라. 대학 교육

직업전문대학의 경우 3년 반에서 4년 정도 수업이 이루어지며 현재 29개의 전문대학이 있고 약 7만 5천 명 정도의 학생이 다니고 있

다. 이 직업전문대학에선 직업전문 지식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학사 학위를 수여받는다. 종합대학교는 10개 정도가 있으며 공과 대학교는 3개, 경제경영대학교 3개, 예술대학교 4개 등의 20여개 대학교에 약 17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석사 과정은 학사 취득 후 최소 2년, 총 최소 5년 정도이다. 대학교도 국립으로 교육부가 직접 관장한다. 그러나 운영은 대학교 자체적으로 한다.





	DOC										
	LIC.										
	5	Master's degrees	Polytechnic Master's degrees								
	4										
	3	Bachelor's degrees	Polytechnic Master's degrees								
	2										
	1										
	3	Matriculation examination	Vocational qualifications								
	2										
	1										
나이	16	10									
	15	9									
	14	8									
	13	7									
	12	6									
	11	5									
	10	4									
	9	3									
	8	2									
	7	1									
	6	Preschool									
		Compulsory schooling									

표6. 핀란드의 교육제도

### III. 결론

영국에서는 만 5세부터 만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교육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3~4세에 취학 전 교육을 받고 있다. 만 16세 이후에도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점점 더 늘고 있으며, 직업교육이나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 학부모들이 5세 미만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방교육청들을 통하여 수준 높은 학교를 찾는다. 일반 개인이나 지원 단체들도 지방 교육청과는 별도의 취학 전 그룹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 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국의 유치원과 같은 단계의 교육 부분이다.

취학 전 유아 교육을 받으면 좋은 시설을 지니고 활동할 수 있는 친근한 환경 속에 아이를 둘 수 있고 가족이 아닌 타인들과 그룹지어 활동하고, 놀고, 협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신체 발달이 아동에게는 매우 중요, 유아 교육을 통해 아동들에 신체적 통제, 활동, 공간인지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또한, 조기에 수학적 이해의 기본을 터득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 영국 정부는 2001년까지 3000만 파운드(약550억 원)를 투입하였다. 일반적으로, 본 단계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오전, 오후반에 등록이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들은 종일반(09:00~16:30)에 등록하여 출, 퇴근 시

어린이를 등하교 시킨다. (부모가 원하면 등, 하교 시 집에까지 데리러 오기도 한다.) 최고 15명 정원 기준의 각 오전, 오후반에서는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등의 기초적인 내용의 수업과 미술, 음악, 스포츠 등을 통하여 단체생활의 기본을 가르치며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잠재력 발굴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고등 학교 한반에 40명 정도의 학생을 두고 있으나, 영국은 한반에 10~30명 정도의 학생들만을 두고 있어 선생님이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미국은 다양한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다. 대안 학교는 1973년 프랭크 브라운(Frank Brown) 의장이 주관했던 고등교육의 국가 개혁 위원회에서 이제껏 공교육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면서 시작됐다. 이 학교의 특징은 다양한 학습을 피하고, 강의식 수업 방법을 벗어나서, 학생들이 흥미로운 과목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흥미 유발과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학교의 제도 자체를 학생, 선생, 학부모가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운영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대안 학교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지원을 받아 수업료가 없는 경우도 있고, 반만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학부모로부터 후원내지 수업료를 받아 자생적 경제 기반을 유도하는 학교도 있다.

또한 학습 연령을 14살 정도로 낮추고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증진시키는 변형된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 학교의 특징은 작은 인원의 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생산할 수 있다고 믿고 실천한다.

홈 스쿨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성이나 사회관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부모의 사랑과 자연이 주는 교훈이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최고라는 생각을 한다. 홈 스쿨은 어떤 제도나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초록과 야생이 어우러진 집에서 교육을 받고 숙제를 하면서 스스로 지식과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집에서 이루어진 학습은 교육 위원회의 기준에만 맞추면 학점을 인정받아서 공교육을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대학시험을 치를 자격이 된다.

또한, 미국 교육은 교사가 학생을 재미있게 교육시킨다. 학생이 만졌 하거나 공부한 것을 잘 알지 못하면 학교 끝나고 남아서 그 문제를 알 때까지 가르친다. 또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나 창의력을 분석하기 위해 특별활동(창의적 재량활동)을 한다. 미국선생님들은 매일숙제를 내주어 그 학생의 인격과 시험점수를 함께 합산해서 학부모에게 준다. 학생이 쓴 철자법과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형식에 맞게 반복 가르쳐주며, 어려서부터 미국학생들의 논문 쓰는 법을 확실히 가르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논문쓰기를 꺼려하거나 어려워하지만 미국은 확실히 가르치기에 학생들이 어려워하질 않는다. 미국선생님들이 숙제로 문제를 낼 때에도 답을 빨리빨리 주기보다 많은 질문으로 답을 유도한다.

독일의 대학들은 대체로 평준화 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간의 등급적인 격차가 거의 없으며 법학이나 의학과 같은 일부 인기학과들에서만 정원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독일의 종합대학을 졸업하면 우리나라의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순수학문분야나 사회과학분

야를 취득하게 되나 재학하는 학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학과별로 요구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여 졸업까지는 일반적으로 6년에서 8년이 소요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수업료를 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나 최근 몇 년간 일부 주들에서는 대학 내의 재학연한이 장기화되는 것이 바로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이유로 판단되어 10학기 이상 재학하는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자는 추세로 기울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독일의 교육제도는 졸업 후 사회생활을 목적으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학교들과 다른 점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졸업 후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전 중으로 수업이 끝나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 집안의 과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과락이 된 과목의 점수에서는 다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이 우리의 교육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필리핀은 국제학교를 제외하곤 6-4년으로 중등과정이 없다.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여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열의로 문맹율은 10% 내외이다. 식민 지배를 받아 온 필리핀은 교육에 있어서도 스페인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무상의무교육인 초등교육 중 특이한 것은 지역사회학교운동이다. 미국의 신민지 통치기간에 교육을 비롯해 일반 초등교육제도가 잘 정비되어서 교육수준도 대체로 높은 편이다. 모든 젊은이들은 질 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들

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힘든 노동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필리핀에 있어서 대학졸업장은 사회 신분의 상징으로 통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학생등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대학 수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대학들을 서울대, 연고 대와 견줄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을 보자면 교육격차가 작다는 것, 교사의 질이 우수하다는 것, 교육과정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는 국가차원에서 민족 간, 학교 간, 성별 간, 계층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저학력 또는 부진아를 위해 보충교육을 시행하며 실업자 가정이나 결손가정의 학생들에게 사회적 보상을 통해 교육결손을 막는 제도도 잘 되어 있다.

핀란드 교육과정은 융통성과 분권화, 덜 세분화되어 학생의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여 핵심 교육과정만 정해놓고, 교육내용이나, 교과서 선택, 교과목의 시간편제 등에 학교나 교사의 선택권이 상당히 강화되었다. 3명이 수업하는 반도 있고, 30명이 넘게 수업하는 반도 있어 학생의 선택에 따라 반이 형성되어 학급의 형태가 매우 다양했고 수업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오후에는 요리, 목공 등의 선택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는데 실제 생활과 연관된 실습 위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을 더 중시하는 편인데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선 평준화도 고려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핀란드 교육이 낙오

자나 실패자가 되기 전에 모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력하여 그렇게 되지 않게 하듯 우리나라 학생들이 인성이나 동기, 자신감 측면에서 낫다고 하여 배제하지 말고 끌어 올려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실습을 4월 달에 다녀온 결과, 수업에 집중해야하는 시간보다 서류작업 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을 하는 건지 학교 업무 보러 온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학생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수업을 하게 하기 위해선 선생님들의 업무를 좀 줄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부족한 학생들은 방과 후 지도를 통해 학교 수업을 따라 올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한반에 40명인 정원을 30명 정도로 줄여 학생들 하나하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미국의 수업방식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학생 스스로가 수업을 안 들어도 되겠다 싶을 땐 교실 밖에 있는 둥그런 책상과 의자에 앉아 독서를 하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선생님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 학생들도 자기 생각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생님과 학생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개선하고 노력해야한다. 또한 다른 나라 교육제도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은 과감히 버려서 선진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야겠다.

## IV.참고문헌

1. 박도순 외,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문음사, 1997
2. 정철영 외, 직업기초기능에 관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분석,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1998
3. 정일환 외, 미국의 교육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연구소, 1994
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로 본 미국교육, 1997
5. 구자익 외,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교육, 문음사, 1997
6.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주요국의 교육자치제도, 국회사무처, 1991
7. 노종희 외, 교육제도론, 하우, 1996
8.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교육과학사, 2000
9. 윤정일,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세영사, 2000
10. 최상덕, 영국의 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2005
11. 김명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연구원
12. 두산백과사전
13. 핀란드 대사관
14. 문국현과 함께하는 사람들
15. MBC 핀란드와 우리나라 교육제도 비교 프로그램



## 국문 요약

교육제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영국, 미국, 독일, 필리핀, 핀란드의 현재 초등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 대학교육제도는 어떠한지 알아보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영국의 의무교육  
미국의 대안학교, 수업료 지원, 홈 스쿨  
독일의 교육평준화, 수업료 지원, 진로선택 용이  
필리핀의 무상의무교육  
핀란드의 교육격차 줄이기 위한 노력, 보충교육시행, 교육결손 줄이는 제도가 장점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만족스러운 교육을 하기엔 부족함이 있기에 다른 나라 교육제도의 장점을 찾아보고 배우고 도입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영문 요약

Despite the amendment of the education system for education in our country with endless complaints. That's why our country's education system and the UK, USA, Germany, the Philippines, Finland's current element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higher education, university education is seen eotteohanji know.

To summarize briefly,  
Britain's education  
America's alternative schools, tuition assistance, homseukul  
Germany equalization of education, tuition assistance, facilitate selection Jinro  
Philippines free compulsory education  
Finland's efforts to reduce the gap in education, enforcement supplemental education, education system, reducing the advantage of shortcomings.

It is not yet a satisfactory education for all, if it went to another country because lack of education could lead to the benefits of learning introduced by browsing the country's education system is to be able to do it better.